

인쇄전자 컨퍼런스 9월11-13일 개최

인쇄전자(Printed Electronics)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여 인쇄전자의 기반 구축과 저변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한국인쇄전자협회와 ICFPE(International Conference on Flexible & Printed Electronics) 주관으로 <2013 국제인쇄전자 컨퍼런스>가 2013년 9월11-13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CFPE 조직위원장인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2010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교수, 일본 Smimoto화학의 오가와 이쿠조 사장, 도레이첨단소재 이영관 대표 등의 강연이 이어질 예정이다.

인쇄전자는 필름에 전도성 전자잉크로 회로를 찍어내듯 인쇄하는 기술로 스마트 IT, 디스플레이, 태양광 산업 등과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쇄전자 컨퍼런스는 2010년 한국에서 처음 열린 이후 중국, 타이완, 일본에서 순환 개최되고 있다.

<화학저널 2013/09/11>